충남의 2013년, 수출입 들여다보기

오 세 환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

<요 약>

충남의 2013, 수출입 들여다보기

‘우리나라 전체 무역흑자의 71%가 충남의 것’

지난해 세계경기 회복 부진 속에서도 우리 수출은 전년대비 2.1% 증가한 5,596억 달러, 수입은 0.8% 감소한 5,156억 달러로 무역 흑자 441억 달러를 기록하며 수출 순위 세계 7위, 3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달성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2013년 기준으로 우리 수출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는 충남 수출은 전년대비 5.1% 증가한 652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수출 증가에 기여했다. 한편 수입은 전년대비 1.5% 증가한 34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충남의 무역수지는 우리나라 전체 무역 흑자의 71%에 상당하는 312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달성했다.

‘수출 규모, 포루투갈·필리핀·그리스 수출보다 커’

2013.1~11월 기준 충남의 수출 실적은 596억 달러로 같은 기간의 포루투갈(581억 달러), 필리핀(494억 달러), 그리스(336억 달러) 등 웬만한 국가들의 총수출액 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2013년 연간 실적에서도 해당국들의 수출실적을 앞서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출 증가 기여율, 경기에 이어 전국 2위’

수출 증가율에서도 지난해 충남 수출은 전년대비 5.1% 증가로 우리나라 총수출 증가율(2.1%)을 3.0%p 상회하며 선전했다. 주요 지역과 비교에서 경기(16.0% 증가), 충북(14.1%) 등에는 뒤지나 경북(3.2%), 서울(2.8%), 인천(2.2%), 울산(-5.9%) 등에는 앞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2012년 대비 2013년 우리나라 전체 수출이 118억 달러 증가한 가운데 충남

의 수출 증가액은 같은 기간 32억 달러 증가, 우리나라 총수출 증가액에 대한 충남의 수출 증가 기여율은 26.8%로 경기도(119.2%)에 이어 전국 2위를 차지했다.

‘충남 반도체 수출, 우리나라 반도체 총수출의 약 1/3’

지난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은 전년대비 13.3% 증가한 571억 달러로 호조세를 나타낸 가운데 충남의 반도체 수출 실적은 177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반도체 수출의 31.0%를 차지하며 전체 수출을 견인했다. 석유화학중간원료(비중 48.6%), 전자응용기기(48.5%) 수출은 해당 품목 우리나라 총수출의 절반 가량을 충남이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의 전자응용기기 수출이 우리나라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의 5% 수준에서 지난해 48.5%로 큰 폭 확대됐다.

‘수출 품목 다변화 노력 필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충남 수출이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로 평가된다. 지난해 충남 전체 수출 중 수출 상위 10대 품목의 수출 비중은 81.9%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지역과의 비교에서 전남(95.4%), 울산(82.9%) 등에 비해서는 나은 편이나 경기(62.0%), 서울(50.8%) 보다는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몇몇 수출 품목에 대한 과도한 집중이 자칫 수출 침체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출 품목을 다변화하려는 업계의 노력과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1. 2013년 충남 수출입 동향

지난해 세계경기 회복 부진 속에서도 우리 수출은 전년대비 2.1% 증가한 5,596억 달러, 수입은 0.8% 감소한 5,156억 달러로 무역 흑자 441억 달러를 기록하며 수출 순위 세계 7위, 3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달성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우리 수출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는 충남 수출은 전년대비 5.1% 증가한 652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수출 증가에 기여했다. 한편 수입은 전년대비 1.5% 증가한 340억 달러를 기록, 충남의 무역수지는 우리나라 전체 무역 흑자의 71%에 육박하는 312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달성했다.

<표> 2013년 충남의 수출입 동향

(백만달러, 전년비 %)

구 분	전체		충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비중*
수 출	559,649	2.1	65,186	5.1	11.6
수 입	515,561	-0.8	33,995	1.5	6.6
수 지	44,088	-	31,191	-	70.7

* 우리나라 전체 수출/수입/수지 대비 충남의 수출/수입/수지 비중
자료 : 한국무역협회(KITA.NET)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반도체 단가 상승에 힘입어 반도체 수출이 전년대비 6.7% 증가한 177억 달러로 여전히 충남 지역의 1위 수출품목으로 선전한 가운데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107억 달러), 전자응용기기(53억 달러), 석유제품(52억 달러) 등이 수출액 기준 상위 품목으로 나타났다. 수입품목으로는 충남 총수입의 45.6%를 차지하고 있는 원유 수입이 전년대비 7% 감소한 155억 달러를 기록한 가운데 석유제품(39억 달러), 석탄(22억 달러) 등이 상위를 차지했다.

<표> 2013년 충남의 주요 품목별 수출입 동향

(백만달러, 전년동기비 %)

품목명	수출			품목명	수입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합 계	65,186	5.1	100.0	합계	33,995	1.5	100.0
반도체	17,718	6.7	27.2	원유	15,488	-7.0	45.6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10,732	-8.4	16.5	석유제품	3,931	13.6	11.6
전자응용기기	5,287	16.6	8.1	석탄	2,156	-19.1	6.3
석유제품	5,179	-10.4	7.9	기초유분	715	817.9	2.1
석유화학중간원료	3,455	66.7	5.3	곡실류	673	145.3	2.0
컴퓨터	2,645	12.1	4.1	정밀화학원료	658	1.4	1.9
자동차부품	2,620	17.1	4.0	반도체	612	73.7	1.8
합성수지	2,029	-9.7	3.1	합금철선철및고철	603	7.9	1.8
무선통신기기	1,964	61.5	3.0	식물성물질	553	3.4	1.6
자동차	1,757	-9.6	2.7	LPG	526	32.8	1.5

* 총수출(수입) 대비 비중/ 주 : 품목 분류는 MTI 3단위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KITA.NET)

주요 수출국으로는 충남 수출의 47.3%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으로의 수출이 전년대비 12.8% 증가한 309억 달러를 기록한데 이어 홍콩(82억 달러), 미국(50억 달러), 대만(33억 달러) 등이 상위를 차지했다. 한편 주요 수입국으로는 쿠웨이트로부터의 수입이 전년대비 6.2% 증가한 58억 달러를 기록한데 이어 중국(31억 달러), 일본(30억 달러), 호주(24억 달러) 등으로부터의 수입이 전년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급증했다.

<표> 2013년 충남의 주요 국가별 수출입 동향

(백만달러, 전년동기비 %)

국가명	수출			국가명	수입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합 계	65,186	5.1	100.0	합계	33,995	1.5	100.0
중 국	30,856	12.8	47.3	쿠웨이트	5,836	6.2	17.2
홍 콩	8,176	-6.4	12.5	중국	3,131	18.8	9.2
미 국	4,979	20.0	7.6	일본	3,003	19.4	8.8
대 만	3,273	25.4	5.0	호주	2,420	17.9	7.1
일 본	2,965	-18.3	4.5	카타르	2,145	-47.6	6.3
베트남	2,562	15.9	3.9	이란	2,035	-19.5	6.0
멕시코	1,422	2.2	2.2	사우디아라비아	1,807	32.5	5.3
슬로바키아	1,254	-32.6	1.9	아랍에미리트 연합	1,675	-23.2	4.9
싱가포르	831	-23.8	1.3	미국	1,490	3.9	4.4
말레이시아	773	42.2	1.2	러시아 연방	1,323	68.9	3.9

* 총수출(수입) 대비 비중/ 자료 : 한국무역협회(KITA.NET)

2. 2013년 충남 수출 특징 및 평가

‘수출 규모, 포루투갈·필리핀·그리스 수출보다 커’

2013.1~11월 기준으로 충남의 수출 실적은 596억 달러를 기록, 같은 기간의 포루투갈(581억 달러), 필리핀(494억 달러), 그리스(336억 달러) 등의 수출액 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2013년 연간 실적에서도 관련 국가들의 수출실적을 앞서는 것으로 추정된다. 충남의 수출금액 규모는 이들 나라 외에도 우크라이나(584억 달러), 콜롬비아(535억 달러), 뉴질랜드(356억 달러), 슬로베니아(314억 달러) 등 세계무역기구(WTO)가 수출실적을 집계한 29개국의 수출액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013년 충남 수출 및 주요국 수출 비교

주 : 2013.1~11월 누계 기준
자료 : WTO, 한국무역협회(KITA.NET)

‘수출 증가율, 우리나라 전체 수출 증가율 상회’

지난해 충남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5.1% 증가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증가율(2.1%)을 3.0%p 상회하며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지역과의 수출 증가율 비교에서는 경기(16.0% 증가), 충북(14.1%), 광주(12.3%) 등에는 뒤지나 경북(3.2%), 서울(2.8%), 인천(2.2%), 울산(-5.9%) 등에는 앞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림> 2013년 주요 지역별 수출 증가율

자료 : 한국무역협회(KITA.NET)

'수출 증가 기여율, 경기에 이어 전국 2위'

수출실적 기준으로 지난해 충남은 652억 달러 수출로 경기 1,020억 달러, 울산 915억 달러에 이은 전국 3위를 기록했으나 우리나라 총수출액 증가에 대한 기여율 측면에서는 경기에 이어 2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대비 2013년 우리나라 전체 수출이 118억 달러 증가한 가운데 충남의 수출 증가액은 같은 기간 32억 달러 증가하여 우리나라 총수출 증가액에 대한 충남의 수출 증가 기여율은 26.8%로 경기도(119.2%)에 이어 전국 2위를 차지했다. 반면 울산은 수출액 규모 측면에서는 충남에 앞섰으나 수출 증가 기여율에서는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충남에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13년 주요 지역별 수출 증가 기여율

(백만달러, 전년동기비 %)

	2012		2013		수출증가액 (b−a)	증가기여율*
	금액(a)	증가율	금액(b)	증가율		
총수출	547,870	−1.3	559,649	2.1	11,779	100.0
경기	87,980	0.5	102,017	16	14,037	119.2
충남	62,031	3.5	65,186	5.1	3,155	26.8
광주	14,133	5.9	15,870	12.3	1,737	14.7
충북	12,045	−1	13,738	14.1	1,693	14.4
경북	52,109	0	53,767	3.2	1,658	14.1
서울	58,709	4.8	60,334	2.8	1,625	13.8
인천	26,710	−0.4	27,291	2.2	581	4.9
부산	13,557	−6.9	13,263	−2.2	−294	−2.5
전남	41,906	4.8	41,407	−1.2	−499	−4.2
경남	55,961	−15	51,840	−7.4	−4,121	−35.0
울산	97,213	−4.2	91,499	−5.9	−5,714	−48.5

* 2012년 대비 2013년의 총수출 증가액에 대한 지역별 수출 증감액 비중(%)
자료 : 한국무역협회(KITA.NET)

‘충남 반도체 수출, 우리나라 반도체 총수출의 약 1/3’

지난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은 전년대비 13.3% 증가한 571억 달러로 호조세를 나타낸 가운데 충남의 반도체 수출은 177억 달러를 기록, 우리나라 전체 반도체 수출액의 31.0%를 차지하며 전체 수출을 견인했다. 석유화학중간원료(비중 48.6%), 전자응용기기(48.5%) 수출은 해당 품목 우리나라 총수출의 절반 가량을 충남이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의 전자응용기기 수출이 우리나라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의 5% 수준에서 지난해 48.5%로 큰 폭 확대됐다. 한편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비중 37.5%), 컴퓨터(34.1%) 등도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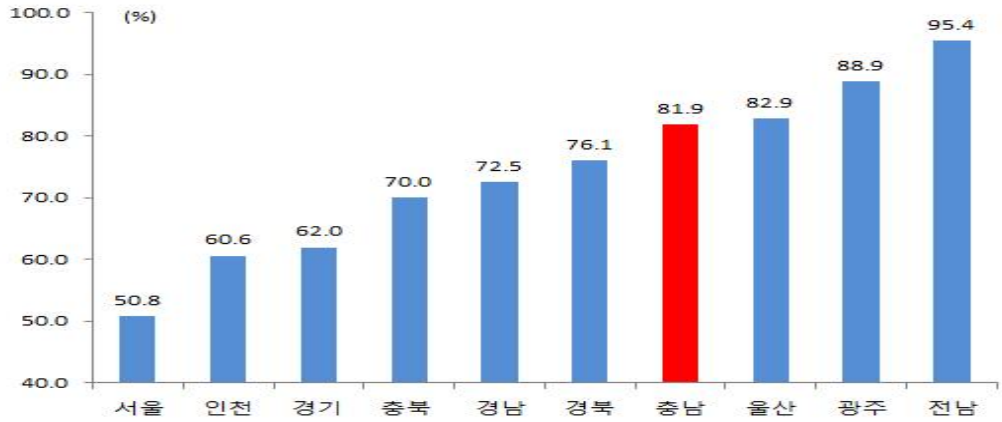
<그림> 2013년 충남 10대 수출 품목의 총수출 대비 비중

주 : 품목의 우리나라 총수출액 중 충남 수출 비중
자료 : 한국무역협회(KITA.NET)

‘수출 품목 다변화 노력 필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자응용기기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충남 수출이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로 평가된다. 지난해 충남 전체 수출 중 수출 상위 10대 품목의 수출 비중은 81.9%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지역과의 비교에서 전남(95.4%), 울산(82.9%) 등에 비해서는 나은 편이나 경기(62.0%), 서울(50.8%) 보다는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몇몇 수출 품목에 대한 과도한 집중이 자칫 수출 침체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출 품목을 다변화하려는 업계의 노력과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그림> 주요 지역별 10대 품목 수출 비중



주 : 지역별 총수출액 대비 MTI 3단위 기준 수출 상위 10대 품목의 수출액 비중
자료 : 한국무역협회(KITA.NET)